



‘제14회 광주독립영화제’가 오는 26~29일까지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왼쪽부터 ‘소영의 노력’·‘1980 사복’·‘슬기다운’ 스틸컷. <광주독립영화제 제공>



지친 일상 ‘비타민’ 같은 영화로 위로와 희망을

‘제14회 광주독립영화제’ 26~29일 광주극장·GIFT
개막작 ‘소영의 노력’ 등 총 26편 상영…GV·포럼 등



날이 부쩍 더워졌다. 폭푹 찌는 공기에 한 발 내딛는 것조차 버거운 여름, 상큼한 비타민처럼 감각을 깨우는 독립영화들이 광주에 찾아온다.

무더위 속 지친 일상에 작은 숨을 불어넣을 ‘비타민 F(ilm)’, 제14회 광주독립영화제가 막을 올린다.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GIFT). 올해 영화제는 불안한 일상과 지친 마음에 비타민처럼 상큼한 영화를 통해 활력과 위로를 전하겠다는 메시지를 담는다.

상영작은 총 26편. 지역성과 동시대성을 품은 광주 영화인들의 작품부터 지역교류전과 해외초청작까지 다채로운 작품들로 채워

진다.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극장에서 상영되는 개막작은 오재형 감독의 ‘소영의 노력’이다. 춤을 통해 존재를 표현하는 장애인 청년 ‘소영’의 여정을 따라가며, 무대 위에서 빛나는 한 몸짓의 진심을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담아낸다. 오 감독은 “영화는 뭐든 잘 해내고 싶은 청년의 몸짓이자 다음 무대가 또 있었으면 하는 예술가의 간절한 메시지, ‘일반인’ 같은 평범한 삶을 바라는 장애인의 이야기”라며 “관객들이 더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소영의 마음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개막작은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돼 모두가 함께 영화의 언어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주극장이 이번 영화제를 앞두고 영사기·스크린·음향시스템을 전면 교체해 새단장을 마친 만큼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오후 5시 예정된 폐막작은 박봉남 감독의 다큐멘터리 ‘1980 사복’. 작품은 1980

년 4월 강원도 사복에서 발생한 광부들의 집단 항쟁과 공권력의 충돌을 다룬다. 폭동으로 낙인찍혔던 ‘사복사건’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단편화된 역사 인식을 넘어 그날의 진실에 질문을 던진다. 야만의 시대가 남긴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며, 침묵 속에 묻힌 기억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인상 깊다.

광주지역 창작자들의 실험과 시선을 담은 ‘메이드 인 광주’ 섹션은 영화제의 정체성을 가장 또렷이 드러낸다. ‘슬기다운’(김소영 감독)은 부당한 해고를 겪은 여성의 내면을 통해 ‘저항과 침묵’ 사이의 균열을, ‘소년 실격’(김소은)은 트랜스젠더 육상선수를 통해 차별과 연대를 섬세히 조망한다. 그 외에도 청소년기의 불안한 관계를 포착한 ‘일명일령’(김예원), 파스한 첫사랑의 감정을 그린 ‘풍악풍악’(박한솔), 현대인의 고립을 드러낸 ‘치킨맨’(김현빈) 등 다양한 색채의 작품

들이 관객과 만난다.

또 올해의 주목할 섹션 중 하나는 ‘광주 신진 감독전’이다. 이예은 감독의 ‘베이비!’가 29일 오전 11시 상영된다. 은둔형 외톨이가 출산을 앞둔 옛 연인의 연락을 받으면서 흔들리는 내면을 그린 작품으로 지난해 고릴라펀드 시나리오 피칭 당선작이기도 한다. 심장병으로 탈릴 수 없는 청년이 미술관 안 내원을 만나면서 펼쳐지는 따뜻한 성장담을 그린 ‘심장!’(오유현)과 택배 분실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굿투씨유’(김선영) 등 독창적인 세계관을 선보이는 신예 감독들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해외 초청작으로는 퀘벡 내셔널데이(6월 24일)를 기념해 ‘RU’가 상영된다. 베트남 난민 소녀의 퀘벡 정착기를 그린 이 작품은 전쟁과 이민, 정체성의 문제를 섬세하게 풀어내며 영화로 국경을 넘는 교감의 장을 마련한다.

련한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영화 상영 후 감독 및 제작진과의 관객과의 대화(GV)는 물론 고릴라펀드가 후원하는 ‘시나리오 피칭 프로그램’, 지역영화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지역영화포럼’, 창작자 네트워킹 행사인 ‘광주 영화인의 밤’ 등이 마련된다.

오테승 광주독립영화협회 대표는 “상영편수의 제한, 지역 영화 예산의 삭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많은 창작자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지원 집행위원장은 “독립영화가 단순한 대안영화가 아니라 동시대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고 사유하는 예술”이라며 “올해 영화제가 관객에게 ‘영화 비타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람료 5000원(개막작 무료). 광주독립영화관 또는 디트릭스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추상과 구상의 경계에 피어난 풍경화… 그리고 고향

김혜선 개인전, 25일~7월 19일 은암미술관



‘장주지몽-에메랄드 그린’

고향에서의 첫 개인전.

김혜선 작가는 김희가 새롭다. 고향 광주에서 처음으로 전시를 열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홍대 미대)에 진학하면서 고향을 떠났지만 마음에는 늘 광주가 자리했다.

대학 졸업 후 30여 년간 인천에서 미술교사를 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펼쳤다. 그는 틈틈이 광주의 역사 깊은 ‘에보르’ 단체를 매개로 고향화단과의 연결고리를 이어왔다.

은암미술관 전시(25일~7월 19일) 주제가 ‘고향 가는 길’인 것은 그런 연유 때문이다. 전시를 앞두고 만난 김 작가는 “고향에서 첫 전시를 미술관에서 할 수 있어서 설렌다”며 “나의 고향의 색과 질감은 무엇인가”라는 고민 등이 작품에 투영돼 있다”고 전했다.

45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모두 2부로 구성돼 있다. 전체적인 전시 모티브는 바다다. 그러나 실제적인 바다가 아닌 추상과 구상의 경계지점에서 피어난 풍경화다.

작가는 나이프를 활용해 “물감들이 섞이고 밀어내면서 드러내는 이미지를 구현했다”며 “재현이라기보다는 경험과 상상 그리고 기억을 매개로 만들어진 기호화된 풍경”이라고 언급했다.

1부 소주제는 작가의 정체성과 예술적 DNA를 가능할 수 있는 ‘아버지의 바다’. 다

크 블루의 바다는 시대적인 격류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작가는 “전라도적인 색은 무엇인가 사유했을 때, 다크 블루가 떠올랐다”고 했다.

작가의 아버지 세대들이 거쳐 왔던 시간은 현대사의 아픔과 상흔, 질곡의 시대였다. 한과 슬픔 등이 점철된 지난한 시간은 고스란히 화폭에 두터운 질감과 어두운 색감으로 전이됐다.

아버지와 조부의 고향은 강진이다. 기실 김 작가의 ‘고향 가는 길’은 강진의 바닷가와 고향 광주가 드리워진 ‘내면의 바다’를 상징한다.

2부 소주제 ‘나의 바다’는 1부와 자연스레 연계된다. 한마디로 작가의 바다는 심상의 바다다. “치유의 바다이자 명상의 바다이다”며 “컬러에서 가능한 색을 빼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색감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작가는 말했다.

그는 “나이프를 밀고 당기면서 발현되는 질감과 색감에는 비가시적인 사유와 감성들이 깃들게 된다”며 “나이프를 다루는 작업이라 호흡이 중요한데, 역설적으로 감정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재중기 관장은 “바다가 그리워지는 무더운 여름은 저마다 상상 속에 그리는 바다가 있을 것”이라며 “고향, 바다를 모티브로 한 김 작가의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의미 있는 풍경으로 다가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CITY SCAPE’

무수한 익명의 이야기 ‘도시의 밤풍경’

김도엽 기획초대전, 7월 2일까지 갤러리 충장22

오늘날 도시들은 무한대로 팽창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대인들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할 만큼 도시는 편리함과 익명성 등을 장점으로 한다.

예술가들은 자신이 태어나거나 자란 도시에 대한 나름의 감성이 있다. 어쩌면 ‘예술가를 키운 건 팔 할이 도시’일 것이다. 김도엽 작가의 ‘도시 빛 기록, CITY SCAPE’전은 도시의 밤 풍경이 모티브다. 지난 2일 개막해 오는 7월 2일까지 갤러리 충장22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자신만의 감성으로 구현한 30여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CITY SCAPE’는 정형화된 도시의 풍경과는 거리가 멀다. 캔버스 앞에 선 작가가 즉흥적인 붓질로 쌓아올린 색과 질감의 결과물이다. 마치 오래된 낙엽의 잔해 같기도, 늦가을 황량한 들판의 풍경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하다.

호려하기보다 퇴적된 풍경처럼 보이는 야경은 무수한 익명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현대의 도시보다는 태고의 풍경에 가깝다.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와 풍경들이 겹쳐지고 쌓여 오늘날의 도시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개인적 내밀한 서사와 도시가 지니는 역사적 서사가 맞물린 도시는 거대한 이야기가 축적된 장소로 전이된다. 도시의 속살 곳곳에 드리워진 풍경은 겹겹이 덧칠해진 화면만큼이나 이채롭다.

김도엽 작가는 “도시는 자연스러운 공간이자 도시의 불빛으로 기억되는 친밀한 장소”라며 “그럼에도 관객을 저마다의 느낌과 감성으로 도시의 풍경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 작가는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구엑스포, 수피아미술관 특별전, 남부국제현대미술제 등에 참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예위 ‘지역예술도약 지원사업’ 광주지역 예술인·단체 6건 선정

광주문화재단 지원
지역-중앙연계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신규로 추진한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에 광주지역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 6건이 선정됐다.

분야는 문학 2건을 비롯해 시각예술 1건, 공연예술 3건 등 모두 6건이다.

이번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은 재단이 지난해 지원한 4개 전문 예술인 분야 중에서 추천위를 통해 선별됐다. 재단은 3월말 문예

위에 공식 추천서를 제출했다.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은 광역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예술작품을 위원회가 후속 지원하는 ‘지역-중앙연계 사업’으로 기획됐다. 지역 예술단체와 개인 예술인의 성장과 중앙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선정된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는 작품 및 활동 보완, 재정 지원이 제공된다. 아울러

홍보 등 전문가 자문, 교류 활동 기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재단 노희용 대표 이사는 이번 선정은 “광주 예술 창작자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재단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 예술의 중앙 진출 및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토대 마련 및 다양한 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